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2 Number 03 2014



이재만 선교사 네 번째 책 《창조주 하나님》(두란노)이 출판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에 대한 확신을 통해 성경 전체와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아래 추천서들을 소개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창세기 1장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창세기 1장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성경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고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학 법칙이 서로 모순 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창조 신앙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만 선교사님의 글과 강의는 언제나 전투적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확한 진리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제1막 1장을 다시 세우는 소중한 머릿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저자와 함께 했던 창조과학여행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창조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가설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번에 쓴 책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 또한 창조의 현장에서 창조에 동참하신 예수님을 증거 한다. 이 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보여 준다. 이 책을 창조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한다. -강준민 **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이성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며, 신앙 없는 이성은 공허하다고 합니다. 이에만 선교사는 우리 신앙과 이성과학의 균형을 찾는 분입니다. 이 책은 그 균형을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이지만 난해하지 않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진화론의 허점을 구석구석 밝히고 있습니다. 메마른 과학으로 인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원하면서도 맹목적이지 않은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권오서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앞서의 전작들로 우리가 가졌던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깨졌듯이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역사인 성경에서 떠난 자녀들이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도 열역학 제2법칙을 가르칠 때는 진화론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설명하겠습니다. -김문찬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과학적으로 진화는 이미 그 오류가 끝없이 발견됨으로 상상의 이론으로 격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진화론이 아직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는 과거 진화론으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허상을 미처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진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김인중 **안산동산교회** 담임목사

이제만 교수의 다른 책처럼, 처음 독서를 시작한 후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책이다. 진화론은 일종의 믿음이다. 진화론 교과서를 무비판적으로 공부하고 신봉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워졌다고 착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책은 진화론적 세속사조에 대한 영적 전쟁의 선포이다. 이는 진화론적 전제를 믿으면서도 스스로를 과학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허공 위에 서있음 지적하는 역작이다. 이 책은 21세기 기독교계의 세계관 전쟁을 이끄는 기드온의 횃불과 나팔이다. 이 책의 도전은 자연과학,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철학 및 신학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성경에 입각한 진지한 각론을 쓰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종기 **LA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 사회는 잘못된 논리인 진화론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주님께서 저자를 통해 창조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책을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와 자녀가 이 책을 읽고 이 시대를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박은조 **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은 기독교 세계관의 4개의 기둥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믿고 다른 것은 안 믿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바른 형성을 위해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신앙인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창조 신앙의 기초인 성경연구 특히 창세기 연구에 몰두해 오셨고 창조과학 투어를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책을 통해 창조신앙의 성경적 근거를 확신하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세상을 향해 성경적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저자의 모습, 창조과학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풍요롭게 한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에게도 와 주실 것이다.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담도, 간이식외과 교수

자연과학인 의학자로서 나는 '창조는 신학이고 진화는 과학이다'라고 믿었다. 당연히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과학적으로는 믿어지기가 어려웠다. 내적 갈등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창조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재만 선교사를 통하여 창조가 과학임을 깨닫게 되었다. 창세기가 믿어지니 신구약이 모두 진실이며 과학임을 알았다. 이제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한다. -이철 연세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책은 저에게 창세기 1장을 통해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이재만 선교사님과 함께하셔서 창세기 1장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책은 말씀대로 창조를 전하는 저자의 깊은 지적 통찰과 성경적 해석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진지하게 창조와 진화를 고민하는 분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창조의 증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정선호 건국대학교 생명특성화대학 특성화학부 교수

드디어 꼭 필요한 책이 나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으로 상대주의 신앙으로 몰들어가고 있는 이때, 이재만 선교사의 절대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작입니다. 이 책은 일반 신자는 물론이요, 신학자들에게까지 쬐먹고 있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 신앙의 풍성함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조봉희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멀망으로 치닫는 불신자들의 구원과, 이미 믿으면서도 때때로 흔들림을 경험하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배롭게 쓰시는 이재만 교수님이 성 귀한 저서를 다시 출간하게 됨을 무한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쓴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신비로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무한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힘입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이 이 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용수 양곡교회 담임목사



여섯째 날 육지 동물의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 24, 25)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난 후 드러나며 식물들이 자란 육지에서 동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다. 성경에서는 여섯째 날의 동물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이다. 여기서 가축은 길들이기 쉬운 동물, 짐승은 야생동물, 그리고 기는 것들은 그 밖의 땅 위의 동물들, 즉 기어 다니는 곤충과,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여기에서도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된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족하셨다. 바로 이어 창조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완전한 지구를 준비하신 모습이다(사 45:18).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 고래라면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다. 코끼리는 무게가 6,6톤이나 되는데 한 번에 1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며 227kg의 먹이를 먹는다. 또한 코끼리의 큰 귀는 놀라운 청각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귀가 체온을 유지하는 냉각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린은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큰 심장을 갖고 있다. 기린의 심장은 길이가 60센티가 넘는다! 이 심장은 5미터가 넘는 높이에 있는 머리에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밀어 올려 준다. 만약 기린이 이런 강한 심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높이 있는 머리에 피가 공급되기 어려워 졸도하여 죽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그런 혈압으로는 물을

먹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게 되면 갑자기 피가 머리로 쏠리게 되어 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기린이 물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면 자동으로 혈관밸브가 작동해 뇌에 갑작스럽게 피가 모이지 않게 하여 뇌출혈을 막아준다.

기린만 하더라도 긴 목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 죽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린을 보면서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이 만들 수도 없으며, 기린이 노력했다고 갖추어질 모습도 아니다. 오직 기린을 초월하신 전능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회색곰은 후각이 매우 발달하여 18마일 떨어진 시체의 냄새도 맡을 수 있다. 북극곰 몸의 털은 마치 털옷과도 같아서 차가운 바깥온도와 몸을 격리시키는 단열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북극곰은 차가운 북극의 얼음물에서 수영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다. 북극곰은 수영 선수이기도 한데 거대한 몸집으로 50마일 이상 수영할 수 있다. 인도산 곰의 일종인 슬로스(sloth)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거꾸로 매달려 지내는데 땅에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는 거꾸로 매달린 채로 머리를 270도 돌릴 수 있으며 거꾸로 매달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똑바로 세우고 지낸다.

하루에 3,000개 이상의 대나무를 씹어대는 판다는 특별한 손목뼈를 갖고 있어서 손가락 안에 들어온 대나무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또한 하루에 3,000개 이상의 대나무를 씹어댄다. 한편 코알라의 엄지손가락은 새끼에게 젖을 주거나 안고 있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은 직접 물을 취하지 않고 대부분의 물을 유칼리나무 잎을 섭취함으로써 충당한다.

낙타의 털은 극심한 기후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코는 모래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며 평평한 발바닥은 모래에서 걷기에 알맞다. 낙타의 혹에 있는 지방은 음식과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물 없이 열 배나 더 잘 견딜 수 있다. 캥거루 어미는 새끼의 상태에 따라 두 종류의 젖을 낼 수 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를 위해서는 지방이 풍부한 젖을 내고, 아주 작은 새끼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젖을 낸다.

표범은 육상동물 중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인데 5.5미터의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밤에는 사람보다 6배 뛰어난 청각과 시각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동물의 왕 사자는 시속 64킬로의 달리기 실력과 3.7미터의 높이뛰기 실력 그리고 12미터의 넓이뛰기 실력을 갖췄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모두 뛰어난 낙법과 착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관절과 평형감각 덕분이다. 1984년 뉴욕에서는 32층에서 고양이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 탈 없이 살아났다.

낙법과 달리 점프 능력은 벼룩이 제일이다. 벼룩은 자기 몸의 150배의 높이를 뛰어오르는데 이 때의 가속도는 NASA의 우주왕복선의 50배에 달한다. 더욱이 한 번 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3,000번 이상 연속해서 뛰어오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더할 것도 더 빨 것도 없이 창조하신 완전한 피조세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자연주의가 들어갈 틈도 없고 진화의 흔적도 없으며 시간의 간격과 동물들의 노력도 필요 없는 오직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만을 보여주는 피조세계인 것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6-28)

드디어 창조의 종착역에 왔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순간이다.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할 존재인 사람이 창조된 것이다.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종류대로”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을 세 번 사용하셨다.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image)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구 이미지가 난다’란 말을 하지 않는가? 닮았다는 의미다. 앞서 창조한 것들은 모두 우리 인간이 다스릴 대상이며 우리 인간은 그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들으신다, 만지신다, 흠향하신다, 말씀하신다” 등의 오감뿐 아니라 “기뻐하신다, 웃으신다, 슬퍼하신다, 한탄하신다, 진노하신다” 등의 감정 표현도 등장한다. 또한 “만드신다, 부르신다, 기억하신다...” 등, 사람에게 사용하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누군지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려 한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원숭이가 아니던가? 이는 자연주의적 사고방식 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흑시 독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이는 것 가운데서 정의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똑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그런 중간단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과거에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조상이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들 중 하나는 원숭이로,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각각 진화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진화론적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상상의 산물인 공통조상을 찾으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은 세상에 발표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교과서에까지 실리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내고 발표한 공통조상이 결국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났는지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존재했었다면 진화는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필트다운인, 네브라스카인 등이 공통조상으로 교과서에 수록됐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교과서를 장식했으며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자바원인과 네안데르탈인은 사람으로, 네브라스카인은 멧돼지로, 필트다운인은 거짓말로 이미 결론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창조과학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결론만 언급하기로 한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들을 진화의 조상으로 가르침으로써 진화론을 믿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기원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면 이미 오래 전에 결론이 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 결론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잘못된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다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통조상의 대명사라고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가 꼽힐 것이다. 그 동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개의 뼈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루시(Lucy)'가 단연 유명하며 아직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루시'는 도날드 요한슨이 1973년 이디오피아에서 발견한 두개골과 몸통, 다리뼈를 연결하여 사람 신체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 신체 중에서 몸통은 원숭이를 닮았지만 무릎관절이 인간의 것과 닮았기에, 네발로 걷다가 두발로 걷기 시작한 공통조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루시는 대표적인 과학 논문지에서 원숭이의 뼈로 결론이 났다.^{1,2} 실제로 인간의 것과 닮았다던 루시의 다리뼈는 루시의 몸통으로부터 3km나 떨어진 곳에서 따로 발견된 것이었다. 최근에도 주요 과학 논문지에서 루시에 대하여 심각한 반론이 제시된 바 있다.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1. E. Stokstad, "Hominid Ancestors May Have Knuckle Walked," Science, 2000.
2. Richmond and Strait, "Evidence that Humans Evolved from Knuckle-Walking Ancestor," Nature, 2000.



ITCM / 창조과학탐사 / 신학교 창조과학탐사



<ITCM> Desert View Point에서



<ITCM> 사무실에서

제 5기 ITCM 소식

1월 20-22일 2박 3일간 현장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랜드캐년, 마블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을 돌아보았고, 2월 3일에는 샌디에고의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을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2월 13-14일에는 데쓰밸리와 오웬스밸리를 방문하여 빙하시대 현장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흔적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29일부터 시작 된 제 5기 ITCM(창조과학 집중훈련)은 2월 21일에 마치게 됩니다. 이 훈련을 마친 청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훈련을



마친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WAM 탐사여행

지난 1월 16-18일 NASA DTS 훈련생들이 창조과학 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DTS 과정에는 한 주간의 세계관 교육이 있는데 지난 해부터 3일간의 창조과학 강의와 3일간의 창조과학탐사로 진행 됩니다. 참석자들의 간증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다른 선교기관들도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Fuller 신학교 창조과학탐사

2014년 3월 17-20일(월-목 4일간) 이재만 부회장의 인도로 그랜드캐년, 글렌캐년 댐,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을 경유하며 성경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학원과정 이상의 신학생 혹은 배우자(자녀는 참가할 수 없음)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50(2인 1실)이며 선착순 40명에 한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562-868-1697)에 문의 바랍니다.

YWAM 탐사팀





창조과학자 파스퇴르

‘파스퇴르 우유’로 널리 알려진 위대한 창조 과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는 아마추어 미생물학자였다. 원래 전공이 화학이었는데 현미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미생물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파스퇴르 우유’는 그의 연구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다. 버터밀크(butter milk)에서 추출한 미생물이 신선한 우유를 시큼하게 만들지만 열을 가한 추출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이 열처리 과정이 그의 이름을 딴 “파스퇴르 살균법”(pasteurization, 일명 저온살균법)이다. 이 살균법은 높은 열을 가하면 안 되는 포도주나 맥주의 살균에도 중요한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스퇴르의 친구들은 이 살균 특허(US patent 135,245, 1873년)로 그가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는 자기의 발견을 기꺼이 사회에 돌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저온살균법이 성공을 거둔 이후 파스퇴르는 프랑스의 양잠(누에치기)업을 초토화시킨 질병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파스퇴르는 병원(germs)이 누에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는 전염되어 있는 모든 누에와 뿔나무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병원에 감염되지 않은 알들을 골라 프랑스의 양잠업을 다시 일구게 하였다. 이 발견은 뒤에 소개 할 조셉 리스터(Joseph Lister)의 발견과 더불어 현대 의학의 기초가 된 세균이론(germ theory)의 근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고 있다.

파스퇴르의 여러 분야의 실험들 중에서도 가장 스티븐 넘치는 것은 탄저병 백신

(anthrax vaccine) 효과를 직접 대중에게 보여 주는 실험이었다. 탄저병은 최근에 테러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배달 되기도 했던 생물학적인 독극물이다. 당시에는 수의사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균이 큰 동물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파스퇴르의 생각을 비아냥대고 있었다. 파스퇴르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25마리의 양들에게 먼저 백신을 주사하고 후에 탄저균을 주사했으나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25마리의 양들은 다 죽고 말았다.

탄저병 백신을 공중 앞에서 실험 한 다음 날 신문은 백신을 맞은 양들 중에 몇 마리가 아픈 것 같다고 보도를 하였다. 파스퇴르는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 실험을 요구했던 수의학회지의 편집장으로부터 전보가 왔다. “백신 맞은 양 중에서 아픈 양들은 완전히 회복 되었음. 백신 맞지 않은 양들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음. 경탄할만한 대성공임.” 이 후로는 아무도 세균이론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파스퇴르의 광견병 백신(rabies vaccine) 개발은 뜻하지 않게 성공을 거두었다 (1885년). 한 아홉 살 소년의 엄마가 파스퇴르를 급하게 찾아 왔다. 자기 아들이 미친개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아직은 그 백신이 동물실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그 아이에게 주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10 일 동안 파스퇴르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자기 일도 제쳐두고 그 아이의 침상 곁을 지켰다. 후에 그 소년은 세계적인 백신 연구기관인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다.

파스퇴르는 화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생물체에서 추출한 주석산(tartaric acid)이 녹아 있는 용액은 빛을 회전시키는데 반해 실험실에서 만든 주석산은 똑 같은 화학적 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회전시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그는 화학적인 구성 성분은 같지만 구성 원자들의 위치가 서로 다른 광학적 이성체(optical isomer) L-형과 D-형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보고하여 영국 학술원(Royal Society)에서 메달을 받기도 하였다(1856년).

이런 놀라운 업적과 인간성만이 파스퇴르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였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더욱 더 깜짝놀랄 창조자의 손길 앞에 서게 된다.” 가장 완벽하게 그의 전기를 쓴 그의 사위는 그를 “하나님과 영원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영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 파켓(Dr. Stephen Paget)은, “그의 영적인 삶이 과학자로서의 경탄할만한 삶에 결코 뒤지지 않는 한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요 진실한 크리스천, 진정한 창조과학자였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와 진화 논쟁

지난 2월 4일, “창조론은 현대과학 시대에 기원에 대한 문제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모델인가?”라는 주제로 창조와 진화 논쟁이 벌어졌다.

진화론측 대표자는 “사이언스 가이” (“The Science Guy”)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얻게된 빌 나이(Bill Nye)였고, 창조측은 미국에서 최근 창조과학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앤서스인 제네시스(Answers in Genesis)의 대표 켄 햄(Ken Ham)이었다.

빌 나이는, 약 20여 가지 정도의 진화의 증거라는 정보들을 제시하며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정보 중 많은 것들은 잘못된 정보였으며, 나머지는 이미 창조과학자들이 답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다. 사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증거들은 거의 모두가 오히려 성경적 창조를 뒷받침한다.

지구가 젊다면 하루에 11종씩 분화됐어야 한다? 빌은 그의 주장에서 오늘날 수백만이 넘는 “종”이 방주에 탔던 7,000 “종류”에서 4,500년만에 분화되려면 매일 약 11종의 새로운 생물 종이 만들어졌어야 한다며 불가능함을 주

장했다. 그는 단순히 지구상의 모든 종(species)의 수인 16,000,000을 4000년으로 나누어 하루에 몇 종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계산했다. 그러나 방주에는 해양 생물이 탈 필요도 없고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 방주에 타야 할 코로숨을 쉬는 동물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16,000마리 이상일 필요가 없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319과(family)에 속해 있다. 대개 한 종류는 한 과와 비슷하다. 홍수 이후에 빙하시대를 겪게 되는데 새로운 종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생기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여러 교정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 이후 약 4500년의 연대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빅뱅의 증거다? 우주에는 매우 낮은 온도 (2.73K)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진화론자들은 이 에너지가 빅뱅의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수정하려한다. 왜일까? 이 배경 복사 온도가 우주 모든 곳에서 거의 같기 때문

이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우주의 어떤 곳은 온도가 높아야 하고 어떤 곳은 낮아야 하며, 그 차이가 확연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관찰 결과에 의하면 배경 복사 에너지의 특징은 성경적 창조 모델과 일치하고 오히려 빅뱅에 모순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번 논쟁에 참고자료로 제시된 천문학자이며 창조과학자인 데니 포크너(Danny Faulkner)의 인터뷰가 흥미롭다. “어떤 천문학자나 천체 물리학자도 우주가 오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이 젊은 지구를 믿지 않는다? 빌은 오랜 지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빌어 젊은 지구 창조를 반박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젊은 지구를 반박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들의 믿음으로 사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빌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지구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오랜 지구의 믿음은 성경을 반대하는 믿음이다. 자신이 오랜 지구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나는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오랜 지구 자체가 지질학적 진화론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오랜 지구를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다. 생물학적 진화론만 진화론이라고 쉽게 생각해보려고 말기에 그렇다.

오랜 지구 창조는 진화론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사용하셨다는 말이다. 최초 사람의 죄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사망과 고통은 존재했다는 이야기, 아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택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된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삯

은 사망이요”(롬 6:23)라고 선언한다. 또한 사망이 사람의 죄로부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의미하게 된다. 어떻게 죽음을 신하게 사용하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모호하고 모순이다. 그리스도는 6일째 완벽히 창조된 그의 형상인 사람이 죄로 인해 사망에 빠졌기에 그분이 직접 사망하고 부활함으로 승리를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젊은 지구를 믿을 때만 비로소 온전해진다.

켄 햄은, 과학은 실험과학 (Experimental or Observational science)과 역사과학 (Historical science)으로 구분되며, 창조와 진화에 대한 문제는 역사과학에 해당하고 이 역사과학은 사람의 믿음과 세계관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역사과학은 그 성격상 선입견 즉 믿음을 먼저 갖고 대상을 관찰하게 된다. 실제로 진화론은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진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갖고 진화의 믿음에 걸맞은 증거들을 찾으며 나온 것이다. 더욱이 진화론은 과학 법칙을 위반해야만 설명 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러나 창조론은 과학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논리적으로 지금의 세상을 예견할 수 있고 잘 설명할 수 있다. 또 창조를 믿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과 기술 발전에 공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창조론은 현대과학 시대에 기원에 대한 문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델”이다. 세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 앞에서 우리는 단 한 권의 책으로부터 기원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조희천(제 1기 ITCM 수료자, 지구물리학 박사과정)

창조과학 탐사

6/29-7/1, 2013

간증

크리스천이었지만 오랫동안 마음 속에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수백만 년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성경과 다른 상태의 지구 나이와 진화론이었습니다. 난 의식적으로 그것을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사를 통하여 머리에 창조를 잘 심었고 진화론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 Dennis Han

창조과학 탐사 전, 나는 지구, 우주, 인류의 존재에 대해 성경적으로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님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믿음에다 과학, 논리, 그리고 이성에 근거해서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조합해서 창조에 대한 강력한 사실성을 완성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진화론이 근거하고 있는 근본 원리들을 보여 주셨는데 잘 해야 전제 아니면 분명한 거짓이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원리들을 빼면 진화론이 근거하고 있는 기초는 헛깨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적인 창조가 얼마나 우리들의 기원에 대한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설명임을 성경과 과학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더욱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탐사를 마쳤습니다. - Steve Koterski

이 탐사에서 진리의 경이로움과 표적들에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알아갈수록 이 사실을 나누는 것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우리와 똑 같은 증거들을 보고 있지만 다른 설명들을 하는데 전 그들을 설득 시킬 자신이 없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된 이야기는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일째 마지막 세미나가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진화론 사상이 사람들에게 동성애, 이혼, 나체주의 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행 18:9-11). 전 이제 확신합니다. 진리를 담대하게 말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셔서 귀중한 생명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Ye Ji Park

이 탐사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분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 탐사를 통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것이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탐사는 내 눈을 열어 진화론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창조과학을 알기 전까지 학교 다니는 동안 줄곧 진화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탐사에 쓸 수 있게 해 주신 목사님과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 Jasmine Paek

내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을 매일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들에게 새겨져 있음을 알아요. 이 경험을 통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 법계도 진지하지 않게도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심장 속에 담을 새로운 지식과 사실들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 Anne Nam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분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도록 남겨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증거도 없이 어떻게 창조를 증명하겠니?”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분은 전능자임을 언제나 자신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 Sue Ham

이 탐사는 공룡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랜드캐년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예들은 진화는 완전히 잘못 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로 있었던 것임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여기 온 것이 정말 기쁘고 이 정보를 진화론자들에게 전해서 그들 마음을 바꾸고 싶습니다. - 지태

이 3일간의 탐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 주셨다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Emerson Lee

이 탐사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는 눈을 열어 주었고 믿음에 확신을 주어 학교에서 배운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김박사님의 세미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증거를 남겨 두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 Christian Kim

이 탐사에 오기 전에 정말 흥분되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게을러서 밖에 나가는 것이 싫었는데,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오게 된 것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 Morgan Choi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어린 제가 여기 온 것이 정말 기뻐요. 지식도 많지 않고 경험도 별로 없지만 이 탐사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창조와 동물들 그리고 진화가 꾸며 낸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가면 어린 애들과 사람들에게 여기서 배운 것과 진화를 믿으면 안된다고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 Jennifer Lee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7학년 때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래도 질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탐사에서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노아홍수, 창조, 진화 등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 Elijah Kim

진화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수십억 년이라면, 자기장도 없어야하고, 바닷물은 완전히 짜게 되었어야 합니다. 수천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 William Nam

2014년

- 3/2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 3/3-6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은누리교회), 이재만
- 3/9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CA
- 3/9 주님의기쁨교회 (이재만), CA
- 3/16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 3/17-20 창조과학탐사 (신학생), 이재만
- 3/23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 3/28-30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이재만), GA

- 4/7-13 창조과학탐사 (창조과학대전지부), 이재만
- 4/15-17 창조과학탐사 (라스베가스하나교회), 김선욱
- 4/25-27 North Bay 장로교회(이재만), CA

- 5/2-8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 5/14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CA
- 5/15-17 창조과학탐사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 5/19-22 창조과학탐사 (지구촌교회), 이재만
- 5/22-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 5/26-29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최우성
- 5/31 순회선교단 (이재만), CA

- 6/1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 6/2-11 창조과학탐사 (온고을선교회), 이재만
- 6/8 주님의영광교회 (최우성), CA
- 6/12-14 빙하시대탐사 (오렌지한인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